

## 교회소식

1. 사순절 시작 후 10일이 지났습니다.  
마가복음을 마치고 마태복음 성경통독 하고 있습니다.  
**하루 성경읽기**에 동참하시어 은혜로운 사순절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사순절 절기설교** 중  
- 예수님은 살아서 제물로 바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의 그의 생애 최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이제 그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진정한 마음은 생명의 종식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제물이 되어야 한다. 믿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 가신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어느 때든지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든 할 일이 끝난 것이며, 살았을 때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 (사계절 목회설교에서)
3. 예배 후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각 공동체는 준비 바랍니다.  
<공동체별 모임 시 사용 위치>  
네팔(중앙홀), 대한민국(상당실 가운데), 루마니아(중고등부실), 바누아투(중앙홀), 베트남(상당실 바깥쪽), 일본(찬양대실), 캄보디아(아동부실), 통가(상당실 첫째), 튀르기에(사무실)
4. 원처치에 청빙 **담임목사 광고**가 올라 간 후 990명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갈보리교회를 위한 합당한 일꾼의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 2025년 3월말까지 정산하여 **헌금영수증**을 만들 것이니 영문이름 작성바랍니다.  
지난주 적지 못하신 분들은 용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시간

- 주일예배 오후 1:00  
(본당)
- 청년부 오후 1:00  
(코트야드룸)
- 중고등부 오후 1:00  
(코트야드룸)
- 유아동부 오후 1:00  
(라운지룸)
-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당)

##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김명춘  
새신자안내 : 이기중  
주차안내 : 민광호  
주방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박혜정

##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calvary Church  
은행계좌 : ASB BANK  
12-3042-0352091-00



2025년 3월 16일 (통권 26권 11호)

교회 설립 1999년 7월 18일

해외한인 장로회  
뉴질랜드 **갈보리교회**  
Calvary Church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 다시 참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로마서 12:1-2)



130 Remuera Road, Remuera, Auckland

021 109 9757 // [pbm@calvary.org.nz](mailto:pbm@calvary.org.nz)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 [www.youtube.com/@calvaryorgnz](http://www.youtube.com/@calvaryorgnz)

## 주일에배 순서

인도 : 박병민 장로

찬양	주일 찬양팀
예배로의 부름	호세아 6장 1-2절
찬송*	19장 / 다함께
참회의 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함께
찬송	150장/ 다함께
대표기도	박병민 장로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1:9-20
찬양대 찬양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설교	요한은 밧모섬에서 - 나명균 목사
찬송	321장 /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계 1:17-19 / 다함께
응답송*	감사 위에 감사 / 다함께
축도*	나명균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 공동성경읽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해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 계시록1:17-19)

## 대표기도 순서

3월 16일 박병민 장로  
3월 23일 김창조 집사  
3월 30일 고석승 집사  
4월 6일 장경희 집사

## 수요예배 순서 (3월 19일)

찬양/기도	한의도 전도사
대표기도	이혜경 권사
말씀	십자가의 능력 (엡2:11-22) 한의도 전도사
찬양/기도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3월 26일 기도: 김은희 집사

\*4월 2일 기도: 이옥화 집사

\*4월 9일 기도: 박정은 집사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 설교요약 //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엡 2:4-7)

지난 주일, 먼저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단어, 두 번째는 <큰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나타냈다. 무엇인가를 주시고 얻게 하려 하셨다. 확증하셨다.'는 등의 현실적인 효과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곧잘 '말로만 사랑하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 하지 않고 큰사랑이라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하나님의 사랑이 큰사랑이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요일4:10).

\* 하나님의 사랑이 큰사랑이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 없을 때 받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롬5:6,8,10).

\* 하나님의 사랑이 큰사랑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도저히 값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만이 감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큰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예수 주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사랑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난 마음'으로서의 사랑을 이미 듬뿍 받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큰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공동기도제목

1. 담임목사의 청빙 과정이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도록
2. 사순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3. 각 공동체 및 선교회에서의 성도들의 교제가 격려의 모임이 되도록
4. 해외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사들이 건강과 사랑의 헌신이 넘치도록